

Ⅱ.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



1 정부예산 편성 규모

- **(총수입)** 총 674.2조원으로 전년 대비 3.5%(+22.6조원) 증가
 - 국세수입은 내수중심 경기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+7.8조원 증가
 -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+14.8조원 증가
- **(총지출)** 총 728.0조원으로 전년 대비 8.1%(+54.7조원) 증가
 - 재정의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('25년 본예산 2.5% → '26년안 8.1%)

2 도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

- **(재정여건)** 지방세 등 **자체수입 감소**, 교부세·보조금 등 **이전수입 증가**
 - 자체수입 감소에도 이전수입 증가에 따라 예산규모는 성장이 예상되나, 지방비 매칭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감소 전망
- **(편성방향)** 민생경제 회복 등 현안대응을 위한 **탄력적 재정운용**
 - **(투자중점)**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사업 중점 투자
 - 민생안정, 산림재창조, 저출생극복, 포스트 APEC 등 현안사업 우선 추진
 - **(재정역량 극대화)** 정밀한 세입 추계로 최대 반영, 순세계잉여금 적극 활용, 기금·특별회계 유기적 운용 등 어려운 재정여건 타개 수단 총동원
 - **(지출 재구조화)**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과 함께 엄격한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기존 사업을 전면 재진단 하고, 부진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추진